
인터넷 시대의 사전 편찬

우병현 · 조선일보 기자

1. 머리말

세계 최초의 컴퓨터인 에니악(ENIAC)은 1946년에 탄생하였다. 오늘날 집과 사무실에서 흔히 사용하는 PC는 1976년 스티브 워즈니악과 스티브 잡스가 애플 컴퓨터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소개하면서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하였다. 지구촌 사람들을 촘촘히 이어 주는 인터넷의 미국 국무부의 지원 아래 아르파넷(ARPANET)라는 이름으로 1969년 탄생하였다.

컴퓨팅과 네트워킹으로 대변되는 디지털 기술은 증기 기관 발명 이래 인류 삶과 문화를 가장 크게 바꾼 기술로 꼽힌다. 이른바 디지털 기술 혁명은 길게는 60여 년, 짧게는 30여 년 동안 지구촌 곳곳에서 변화를 일으켜 왔다. 디지털 기술 혁명에 기반을 둔 각종 변화와 혁신들은 디지털 기술 등장 이전에 감히 상상조차 하기 어려웠던 것들이었다.

하지만 21세기 지구촌 사회에서 디지털 기술 혁명은 더 이상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물이나 공기처럼 자연스러운 존재가 됐다. 이에 따라 지구촌 사람들의 의사소통 행태가 크게 바뀌었고, 상거래와 같은 경제 행위 역시 사이버 공간으로 이동하였다. 심지어 전쟁과

같은 분쟁 행위 역시 해킹 등 사이버 공간에서 이뤄지고 있다.

십수 년 전 디지털 기술 혁명이 시작되기 전 사회 모습을 떠올리면, 지난 십수 년 동안 인류가 겪었던 디지털 관련 변화가 놀랍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한 디지털 혁명은 서막에 불과하다. 디지털 기술 혁명으로 인하여 사람 간 커뮤니케이션과 사람들이 정보나 지식을 얻는 습관 정도가 바뀌었을 뿐이다. 또 기업과 개인 간, 기업과 기업 간 상거래 플랫폼이 오프라인 시장에서 온라인 시장으로 이동했을 뿐이다.

이제부터 인류가 경험할 디지털 기술 혁명은 의사소통과 상거래 분야를 넘어서 교육, 문화, 민주주의, 환경, 도시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을 것이다.

디지털 기술 혁명이 앞으로 몰고 올 변화의 핵심은 '지능' 또는 '지성(Intelligence)'에 관한 것이다. 지금까지 디지털 기술이 일으킨 변화는 기존 사람들이 일하는 방식을 디지털 기술로 대체하는 효율성에 관한 것이었다. 예를 들어 종이에 손으로 글을 쓰거나 타자기로 글을 썼던 것은 컴퓨터 워드 프로세서로 대체함으로써 글쓰기의 효율성을 크게 높였다.

앞으로 인류가 경험할 변화는 디지털 기술에 의한 효율을 넘어서, 디지털 기술과 관련된 지능에 뿌리를 둔 것이다. 지성은 기후 변화와 같은 문제를 미리 파악할 수 있는 예측 능력을 비롯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창조 능력, 질병 해결과 같이 특정 과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내는 문제 해결 능력 등을 뜻한다.

이와 같은 디지털 지성은 기본적으로 지식의 연결 능력에 바탕을 두고 있다. 우선 디지털 기술은 개별 정보와 정보를 연결하고 다시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사람의 두뇌와 두뇌를 연결한다. 이를 테면 개별 지식과 개별 지식은 하이퍼텍스트(Hypertext) 기술에 의해 연결되고, 두뇌와 두뇌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Social Network Service)에 의해 연결된다.

개별 지식과 개별 두뇌가 네트워크에 의해 지구촌 차원에서 실시간 연결됨으로써, 이전에 인류가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롭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서 위키피디아(Wikipedia.org)를 꼽을 수 있다. 2002년에 출범한 개방형 백과사전인 위키피디아는 출범 5년 만에 백과사전의 대명사격인 브리태니커(Britannica) 온라인을 제치고 세계 5위의 사이트에 올랐고, 또 학교, 직장, 정부, 연구소, 가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본 참조 정보로서 자리를 확고하게 잡았다.

이와 같은 디지털 지성을 학자들은 ‘집단 지성(Collective Intelligence)’ ‘협업 지성(Collaborative Intelligence)’ ‘연결 지성(Connected Intelligence)’ 등으로 부르면서 주목하고 있다. 컴퓨팅과 네트워크(정보망)의 힘을 활용하는 집단 지성은 이전 사회가 구축했던 지성에 비해 새로운 특징을 지니고 있다. 먼저 집단 지성은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는 인터넷 특성 때문에 글로벌 차원에서 구축된다. 지구촌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는 글로벌 지성을 구현할 수 있는 것이다. 둘째, 특정 지식 생산에서 마감 시간을 두지 않기 때문에 거의 실시간 업데이트 되는 구조를 지닌다. 살아 숨 쉬는 지식 생명체를 만들 수 있는 것이다. 셋째, 조직 내부 사람뿐만 아니라, 외부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도 참여시킬 수 있는 개방 구조를 지니고 있다.

집단 지성은 인류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선보이고 있는데, 특히 지식 생산에 드는 사회적 비용을 획기적으로 축소시켰다. 위키피디아의 경우 재단 본부 직원이 20명 이내일 정도로 소규모 관리 인원으로 움직이고 있고, 나머지 모든 일은 불특정 다수의 자발적 참여자가 꾸려간다.

둘째, 집단 지성은 시간이 지날수록 지식 체계를 완전한 모습으로 갖춰 가는 눈덩이(snow ball) 구조를 형성하면서 완전한 시스템(system as a whole)을 구축한다. 즉, 실시간으로 새로운 지식을 추가해 나가고, 또 예외와 변종을 거대한 저수지처럼 품어 안음으로써 완전한 지식 체계를 유지해간다.

셋째, 집단 지성 시스템은 지식 활용에 드는 비용을 공짜에 가깝게 만들어, 새로운 창조의 원동력 역할을 한다. 캐나다 토론토 대학의 맥루한

프로그램 (McLuhan Program of Culture and Technology)의 디렉터이자 문화 이론가인 데릭 드 케르코브(Derrick de Kerckhove) 교수는 “창조력은 정보와 정보를 연결하는 연결 지성에서 나온다”라고 주장하였다.

위키피디아는 집단 지성 또는 연결 지성의 매력과 위력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앞으로 온라인 백과사전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집단 지성을 구현하는 사례가 속출할 것이다. 한 사람의 뛰어난 천재보다 수억 명의 보통 사람들이 네트워크를 통해 서로 연결됨으로써, 인류의 경험과 지혜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구현해 나갈 것이다.

한국은 자타가 공인하는 명실상부한 IT(정보 기술) 강국이다. 초고속 인터넷 인프라, 이동 통신망, PC 보급률 등 모든 면에서 세계 최고의 IT 인프라를 갖추고 있고, 국민들도 모두 IT를 활용하는데 능수능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 사회의 다음 과제는 세계 최고의 IT인프라(기간 시설)를 바탕으로 세계 최고의 디지털 지성 시스템을 구현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 한국은 사이버 공간을 어지럽히는 해킹 또는 스팸 메일 발신지로서 비난을 받았고, 초고속 인터넷 인프라(기간 시설, 기반 시설) 위에서 온라인 게임, 사이버 도박 등 오락성 콘텐츠와 서비스 이외에 세계에 내세울 만한 IT 문명을 만들어 내지 못하였다.

이런 흐름 속에서 IT 강국 위상에 걸맞게 한국인의 집단 지성을 결집시키고 작동시킬 수 있는 도전이 필요하다. 특히 위키피디아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한 시대의 문화의 지성을 한데 모으고 지속적으로 진화시키면서 21세기 한국 사회의 문화의 지식을 쌓아 가는 거대한 사전을 집단 지성에 기반을 두어 만들어 낼 필요가 있다.

사전은 한 사회의 문화적 경험과 지식을 모두 담아 내는 것이며, 또 나아가 지속적으로 새로운 변화를 수용해야 그 가치를 발휘할 수 있는 분야다. 그런데, 전통적인 종이 매체를 이용한 기존 사전 편찬 방식은 주기적으로 사전을 편찬하기 위해 많은 돈을 필요로 하며 또 실시간 변화를 수용하는데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런 방식으로는 지식의 생성 및 변화

속도를 도저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고, 그 결과 사전이 일상생활에서 외면 당하는 현상마저 생기고 있다.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공간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 인터넷 공간은 수백만 항목이라도 수용할 수 있으며, 또 이용자들도 인터넷에 접속되는 환경이라면 언제 어디에서든지 빠르고 정확하게 원하는 검색을 할 수 있다. 더욱이 나아가 소수의 전문가의 두뇌에만 의존하지 않고, 다수가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집단 지성 원리에 바탕을 두고 개방성과 참여성을 구현한다면 항상 최신 정보를 제공하는 살아 숨 쉬는 사전으로 발돋움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사전과 인터넷의 결합은 궁합이 잘 맞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사전과 인터넷의 만남은 IT 강국의 위상을 높일 뿐만 아니라, 문화 선진국으로서 국제적 위상도 높일 것이다. 본고는 온라인 사전의 현황과 발달 과정을 살펴보고, 나아가 집단 지성에 기반을 둔 온라인 사전 편찬이 갖는 장단점을 논하고자 한다. 먼저 현재 국내외에서 서비스 되고 있는 온라인 사전 현황과 문제점부터 살펴보고자 한다.

2. 국내외 온라인 사전 서비스 현황

2.1. 인터넷 사전 현황

네이버, 다음, 네이버 등 국내 대형 포털에서는 다양한 온라인 사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중 한국어 사전에 국한하여 온라인 사전 서비스를 살펴보면, 대형 포털들은 공통적으로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 콘텐츠를 기반으로 온라인 사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네이버 국어사전(krdic.naver.com/)은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50만 표제어를 바탕으로 고어 검색, 활용어 검색, 세종 대왕의 추천 등 차별화된 검색 팁을 제공하고 있다. 네이버는 오픈사전(kin.naver.com/openhome)도 운영하

는데, 주로 오픈백과사전(사물의 정의, 현상에 대한 설명, 지식 등), 오픈 국어사전(유행어, 사투리, 신조어 등 흔히 쓰이는 단어를 설명), 노하우 사전(생활 속의 노하우, 지혜, 경험들을 집필) 릴레이 집필 등 생활 밀착형 정보 서비스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중 릴레이 집필 서비스는 위키 방식의 협업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개방 정책을 채택하였으나, 참여도가 높지 않아 2007년 11월 서비스를 중단하였다. 당시 네이버는 명예 집필 위원 제도를 두고, 최우수 집필 위원에게 시상을 하고 집필한 내용에 대해서는 평가(Good, Bad)를 하도록 하였다. 또 자료가 올라오면 24시간 안에 등록된 자료를 검수하여 보류 또는 등록을 결정하고 정보를 훼손하거나 왜곡하는 집필자에 대해서는 페널티 제도(경고 메일부터 강제 탈퇴까지)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였다.

다음도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krdic.daum.net/dickr)을 네이버와 비슷한 형식으로 온라인 국어사전으로 제공하고 있다. 다만, 다음은 위키 피디아 재단과의 제휴에 적극적으로 나서 지식 공유 프로젝트(donation.enc.daum.net/wikidonation)를 운영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다음이 보유한 지식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을 개방해 다음 사용자들이 백과사전 내용을 복사하여 위키피디아 한국어 사이트에 올리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해외에서는 오프라인 사전 제작사의 온라인 검색 서비스가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사전 출판사 중 『케임브리지 디క్ష너리』(Cambridge Dictionary)는 온라인 사전(dictionary.cambridge.org)을 통해서 고급 학습자 사전, 예문 위주로 짜인 학습자 사전, 미국식 영어사전 등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와 별도로 속어 사전과 구동사 사전을 인터넷에서 제공하고 있다.

메리엄-웹스터(Merriam-Webster)의 온라인 버전(www.merriam.com)은 동어 사전, 스페인 어 사전, 의학 용어 사전 등을 인터넷에서 제공한다. 롱만 잉글리시 사전(Longman English Dictionary)의 온라인

버전(www.ldoceonline.com)은 풍부한 시각 자료를 제공하며, 영, 미식 발음으로 예문을 음성으로 읽어 주기도 한다. 이밖에 맥밀란 사전(Macmillan Dictionary)의 인터넷판(www.macmillandictionary.com), 옥스퍼드(Oxford Advanced Learner's Dictionary) 등이 온라인 사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위키피디아의 자매 프로젝트인 위키너리(www.wikinary.org)는 어휘 사전 서비스를 위키피디아처럼 누구나 어휘를 올리고 또 수정할 수 있는 개방형으로 운영하고 있다.

2.2. 폐쇄형 시스템과 개방형 시스템

국내외 온라인 사전 현황을 분석하면, 위키피디아 등 일부를 제외하면 종이 사전을 인터넷 공간에 옮겨 놓은 형태를 띠고 있다. 즉 전문가들이 사전을 만들면, 이를 데이터 베이스화하여 인터넷 공간에 올려놓고, 사용자들이 원하는 단어를 검색할 수 있는 형태를 띠고 있다. 이런 형태를 폐쇄형 온라인 사전 시스템으로, 위키피디아처럼 불특정 다수가 참여하여 사전을 운영하는 형태를 개방형 온라인 사전 시스템이라고 구분할 수 있다.

온라인 사전 폐쇄형과 개방형 시스템은 기술적 측면, 문화적 측면, 운영 측면 등 3가지 측면에서 각각 장단점을 지니고 있다. 기술적 측면에서 보면 개방형 온라인 사전은 수평적 협업에 최적화되어 있다. 수평적 협업은 비슷한 지식 수준과 관심사를 공유한 동등 계층(peer)이 모두 동등한 편집 권한을 갖고 책, 논문, 사전, 소프트웨어 등 지식을 함께 만들어가는 것을 뜻한다. 미디어위키(Media Wiki), 소셜텍스트(Socialtext), 한위키(Hanwiki) 등 국내외에서 사용되는 위키 프로그램은 수평적 협업을 구현하는 각종 기능을 갖추고 있다.

이에 비해 폐쇄형 온라인 사전 시스템은 수직적 협업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다. 수직적 협업 시스템은 시스템 사용자를 권한에 따라 구분하고

위계적으로 협업을 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 예를 들어 수직적 협업 시스템에서는 대리-과장-부장-임원-CEO 등 직급 순으로 협업의 프로세스가 정해진다. 국내에서 널리 사용되는 전자결재시스템, 지식경영시스템(KMS) 등 각종 인트라넷은 수직적 협업 플랫폼을 채택하고 있다.

문화적 측면에서 보면 개방형은 비슷한 관심사와 지식을 지닌 사람들이 모여서 규칙을 스스로 정하고, 규칙 위반자를 함께 걸러내는 자율 및 자정문화를 지향하고 있다. 특정한 감시자나 통제자가 없이 구성원들이 스스로 의무를 지고 권한을 행사하는 민주주의 문화를 지향하는 것이다. '위키노믹스(Wikinomics)'의 저자인 돈 탭스콧(Don Tapscott)은 개방형에 바탕을 둔 생산시스템을 '동등계층 생산(peer production)'이라고 불렀다. 이에 비해 폐쇄형 온라인 사전은 중앙 통제자가 규칙을 정하고 나머지 사람들이 그 규칙에 따르도록 한다. 또한 규칙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감시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

운영 측면에서 보면 개방형은 매일 변화하고, 스스로 진화하는 미완성 사전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에 비해 폐쇄형은 일정 시간에 완결판을 출간한 뒤, 고정된 형태를 유지하다가 주기적으로 일괄적으로 내용을 수정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개방형은 언제나 미완성이라는 의미에서 '시험판(Beta Version)'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개방형과 폐쇄형은 위와 같은 차이점으로 인하여 각각 장단점을 지니고 있다. 개방형의 최대 장점은 앞서 언급했듯이 지식 생산 비용이 제로에 수렴하고, 현재 시점에 화제가 되거나 필요한 지식을 항상 수용할 수 있는 점이다. 반면 개방형은 참여가 저조할 경우 지식의 불완전성이 그대로 노출되어 지식 사용자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하는 등 악순환 상태에 빠진다. 또 통제자가 없는 자율은 언제든지 악의를 지닌 소수에 의해 정보가 훼손되거나 왜곡될 위험 요소를 지니고 있다.

폐쇄형의 장점은 위계적 통제 시스템에 따라 완전한 형태의 지식을 제공할 수 있는 점과 정보 훼손과 왜곡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점이다.

반면 폐쇄형은 지식 생산에 많은 비용을 투자해야 하고, 또 정보화 시대에 쏟아지는 새로운 지식을 제때 수용하기 어렵다. 폐쇄형의 최대 단점은 역시 소수의 지식 엘리트들의 역할이 점차 축소되고 지식 대중의 역할이 극대화되는 네트워크 시대에 맞지 않는 점이다. 폐쇄형 온라인 사전 시스템을 채택할 경우 아무리 많은 인력과 돈을 투자하더라도 기하급수적으로 쏟아지는 지식을 담기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3. 온라인 백과사전 위키피디아에 대한 편견과 오해

3.1. 위키피디아에 대한 한국 사회의 편견

2001년에 출범한 개방형 백과사전인 위키피디아는 출범 5년 만에 백과사전의 대명사격인 브리태니커 온라인을 제쳤고, 심지어 뉴욕타임스 닷컴 등 상위권 사이트들을 제치고 세계 6위의 사이트에 올랐고, 또 학교, 직장, 정부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본 참조 정보로서 자리를 확고하게 잡았다. 위키피디아의 눈부신 성공은 지구촌 사람들에게 개방형 시스템의 장점에 대해 눈을 뜨게 되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위키피디아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은 불특정 다수가 참여하는 개방형은 정보 생산 비용을 어떤 모델보다 낮출 수 있으며, 또 다수의 참여에 의해 당대 지식을 실시간으로 집대성할 수 있는 점이다. 학자들은 '집단 지성' 또는 '협업 지성' 모델이 위키피디아를 통해 작동하는 것에 대해 흥분하면서, 집단지성의 무한한 발전 가능성에 믿음을 갖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도 2006년 무렵부터 위키피디아의 성공에 주목하기 시작하였다. 언론들이 위키피디아 재단 설립자인 지미 웨일스(Jimmy Wales)를 자주 다루기 시작하였고, 위키피디아의 성공 이면을 분석한 돈 탭스콧의 '위키노믹스'가 경제 분야 베스트셀러에 오를 정도로 개방형 시스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널리 확산되었다. 그런데 정작 개방형 시스템

은 한국 인터넷 생태계에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였다. 예를 들어 위키피디아의 한국어 사이트는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한국의 비중이 걸맞지 않게 활성화되지 않고 내용도 영어, 중국, 일본어, 독일어, 프랑스어 등 다른 언어권에 비해 빈약하다.

네이버, 다음, 네이트 등 국내 대형 포털들은 앞서 소개한 대로 기존 폐쇄형 온라인 사전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한 채 개방형 사전의 장점을 일부 수용하는 형태를 취하였다. 다만 국내 2위 사이트인 다음은 네이버의 아성에 도전하기 위해 위키피디아 재단과 협력하여 위키피디아 검색 결과를 제공하고, 다음이 확보한 한국어 항목을 위키피디아에 기부하면서 개방형 시스템을 보급시키는데 적극적이다.

이처럼 인터넷 선진국인 한국에서는 개방형 온라인 시스템이 널리 확산되는 해외 흐름과는 달리 폐쇄형 온라인 시스템이 더욱 자리를 굳히는 기현상이 두드러졌다. 또 개방형 시스템의 약세와 더불어 위키피디아를 둘러싼 부정적이고 또 상호 모순에 가까운 인식이 독특하게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먼저, 위키피디아가 청소년의 지적 능력을 떨어뜨렸다는 외신 보도를 비롯해 위키피디아와 관련된 각종 부정적인 뉴스가 언론에 자주 등장하였다. 이런 뉴스는 정부 관계자, 기업 임원, 교수 등 여론 주도층들에게 개방형 시스템의 부정적인 인식을 갖는데 영향을 미쳤다.

즉, 위키피디아와 같은 개방형에 부정적인 여론 주도층은 누구나 편집할 수 있는 개방성 때문에 누군가 고의로 엉터리 정보를 올리거나, 지식의 부족 때문에 잘못된 정보를 올리면 순식간에 수백만 명의 사람에게 노출될 수 있는 점을 부각시켰다. 실제 한국 사회는 인터넷이 대중화된 이후 인터넷 게시판의 댓글로 인한 각종 사회적 부작용을 경험했기 때문에 위키피디아의 역기능성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개방형 도입을 반대하는데 설득력을 발휘하였다.

둘째, 개방형 인터넷 문화는 한국 특유의 인터넷 문화와 맞지 않는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위키피디아는 영어 이외 중국어, 일본어, 독일어, 스

페인 어 등 다양한 언어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한국어는 항목 수 면에서 10위권에 들지 못한다. 또 내용면에서도 보면 불완전한 항목의 비중이 높아 온라인 백과사전으로서 면모를 아직 갖추지 못하고 있다. 인터넷 문화의 특성상, 특정 사이트가 초기에 많은 사용자들을 끌어 모으지 못하면 정보 수준이 낮고 이런 사정은 다시 사람들의 발길을 돌리게 만드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현재 한국어 위키피디아는 정보 수준이 낮고 거친 상태여서 위키피디아의 명성을 듣고 찾아온 사람들이 발길을 돌리는 악순환에 빠져 있는 상태이다.

한국의 인터넷 전문가들은 이런 현상에 대해 한국 특유의 사이버 문화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이를 테면 세컨라이프(secondlife.com), 마이스페이스(myspace.com) 등 영미 권에서 성공을 거둔 각종 개방 및 참여형 서비스가 한국어 서비스를 시작했다가 결국 뿌리를 못 내리고 접은 것은 한국 특유의 사이버 문화에 적응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인터넷 전문가들이 한국 사이버 문화의 특성으로 꼽는 것은 게시판 중심의 읽고 쓰기 문화, 퍼가기(스크랩) 중심의 정보 활용 문화, 댓글을 통한 순간적 여론 형성 문화, 과정보다 해답에 집중하는 정보 소비문화 등이다. 또 다음 아고라에서 세계 금융 위기 때 발생했던 '미네르바' 사건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이름을 드러내지 않는 다자간 수평 협업보다는 소수의 스타가 전체 여론을 끌어가는 수직 협력이 한국 사이버 공간에서 일반적이다.

이런 현상을 요약하면 한국인들은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동시에 집중시키는 다음 아고라와 같은 사이버 광장(게시판)을 무대로 자신의 의제를 던지고 수많은 동조자들을 끌어 모아 여론 폭발력을 만들기를 선호한다. 또 사이버 공중들은 끊임없이 새로운 스타가 나타나기를 갈망하면서 사이버 광장에 시선을 집중시킨다. 이에 비해 위키피디아와 같은 개방형은 별도의 중앙 광장이 없으며, 또 작업의 성격이 여러 사람이 함께 조립식 장난감인 레고를 맞추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런 구조 속에서는 계

시판 문화에서 흔히 관찰되는 여론의 폭발력이나 스타 탄생을 기대하기 어렵다.

셋째, 위키피디아의 거친 사용자 환경(User Interface)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널리 퍼져 있다. 한국의 포털 사이트들은 입맛 까다로운 한국 이용자들을 상대하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사용자 환경을 만들어왔다. 이에 따라 한국 대부분의 사이트들은 아기자기하고 색감이 뛰어난 사용자 환경을 갖추고 있다. 이에 비해 위키피디아는 사이트 모양이 거칠고, 글을 쓰는 편집기도 세련되지 못하는 등 사용자 환경이 세련되지 못하다. 위키피디아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지닌 사람들은 이런 사용자 환경은 화려하고 현란한 사용자 환경에 익숙한 한국 사용자들을 끌어들이지 못하는 원인이라고 본다.

4. 위키피디아의 숨은 힘, 연결지성

4.1. 인터넷 사이트 플랫폼과 정책

위키피디아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려면 플랫폼과 정책으로 구분해야 한다. 위키피디아의 플랫폼은 워드 커닝햄(Ward Cunningham)이 1994년 처음 고안한 위키위키(WikiWiki) 플랫폼 전통을 따르는 것이다. 위키 플랫폼은 누구나 디자인이나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도움을 받지 않고 웹 페이지를 빠르게 생성하고 수정할 수 있도록 고안된 것으로서 웹의 창시자인 팀 버너스-리(Tim Berners-Lee)가 고안한 하이퍼텍스트 문법 전통에 충실히 따른다.

위키 플랫폼과 상대적으로 비교되는 플랫폼은 데이터 베이스 관리 시스템(DBMS)에 기반을 둔 게시판 형식 플랫폼이다. 웹 초창기에는 사람들이 웹 사이트를 만들 때 HTML문법을 바탕으로 일일이 손으로 문자,

사진 등 개별 정보를 하이퍼텍스트로 연결하는 방식으로 웹 페이지를 생산하였다. 웹 초창기에 이른바 웹 에디터라고 불리는 정보 작성 도구가 발달했던 것을 기억하면 이 점을 금방 확인할 수 있다.

이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등장한 것은 데이터 베이스에 정보를 저장해놓고, 필요한 정보만 불러서 HTML로 만들어주는 방식이었다. 인터넷 게시판이 대표적인 데이터 베이스 관리 시스템(DBMS) 기반 웹 플랫폼이며 오늘날 대부분의 사이트들이 게시판 구조의 틀을 만들어 웹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데이터 베이스 관리시스템 기반 웹 플랫폼은 사이트를 설계할 때 구조를 잘 설계하고 운영 규칙을 정해 두면, 많은 작업을 자동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장점을 발휘한다. 또 사이트의 주요 정보를 바꾸고 싶을 때도 CMS(Content Management System)라는 도구를 개발하여, HTML 문법을 몰라도 메뉴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사이트 정보를 바꿀 수 있다. 오늘날 우리가 자주 방문하는 인터넷 신문, 포털 토론 게시판, 쇼핑몰 등 대부분의 사이트는 데이터 베이스 관리 시스템(DBMS) 기반 웹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 이런 사정은 외국도 마찬가지다.

위키 플랫폼은 초창기 HTML 방식 웹 플랫폼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다. 예를 들어 위키 플랫폼은 정보와 정보를 연결할 때 복잡한 HTML 문법을 외우지 않고, 간단한 규칙으로 연결할 수 있다. 또 위키 플랫폼은 디자이너와 프로그래머 도움을 받지 않고 웹 페이지를 만들거나 수정하도록 하기 위해 데이터 베이스 프로그래밍에 의존하지 않는 구조를 지향하였다.

사이트 운영 정책은 사이트에 글을 쓰거나, 메뉴를 만드는 일을 내부자만 할 것인가 아니면 외부에 공개할 것인가에 관한 것이다. 예를 들어 인터넷은 내부 사람에게만 읽고 쓰기 기능을 개방하는 정책을 채택하고 있다. 포털 사이트의 게시판, 인터넷 뉴스 사이트의 댓글쓰기 등은 일부 기능을 외부에 개방한 사례에 속한다. 위키피디아는 대부분의 기능을 외

부에 완전히 개방한 것이다. 사이트 운영 정책은 플랫폼과 상호 관련성을 맺고 있기는 하지만, 플랫폼에 상관없이 사이트 운영 주체가 선택하는 정책이다. 예를 들어 기업에서 사내 지식 경영 시스템에 위키 플랫폼을 도입하고 내부 사람에게만 읽기 쓰기 기능을 허용할 수 있다.

지미 웨일스는 처음에 온라인 백과사전을 구축하고 운영하는데 데이터 베이스 관리 시스템 방식의 플랫폼을 채택했다가, 막대한 돈을 써버린 뒤 나중에 위키 플랫폼으로 교체하였다. 그리고 웨일스는 위키 플랫폼 운영 원칙으로서 편집권을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하였다. 누구나 인터넷에 접속하여 항목을 새로 만들거나, 기존 항목 내용을 첨삭을 할 수 있도록 개방 정책을 채택한 것이다. 웨일스는 온라인 백과사전 플랫폼으로 위키를, 운영 정책으로서 개방을 선택한 것이다.

그런데, 위키피디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거의 사용자 환경을 제외하면 대부분 개방 정책과 관련된 것이다. 따라서 정보 훼손이라는 문제는 위키 플랫폼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편집권을 개방한 정책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다. 이 점을 달리 표현하면 어떤 플랫폼이라도 개방 정책을 채택하면 정보 훼손이라는 부작용을 피할 수 없으며, 위키피디아를 정보 훼손 위험성이라는 측면에서 비판하는 것을 적절하지 못한 비판이라고 할 수 있다.

4.2. 위키 플랫폼과 연결 지성(Connected Intelligence)

오늘날 위키 플랫폼은 온라인사전 이외에 기업에서 사내 지식 경영 시스템 대체 플랫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플랫폼, 정부 홈페이지 플랫폼 등 다양한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통신 업체 KT는 사내 지식 경영 시스템에 위키 플랫폼을 도입해 회사 내 숨은 아이디어를 찾아내려고 시도하고 있다. 미국 정보 관련 부처는 위키 플랫폼을 도입해 정보를 공

유하고 있다. 한국의 행정 안전부는 부처 내 지식을 체계적으로 쌓고 이를 내부적으로 공유하기 위해 위키 플랫폼을 도입하였다. 스프링노트(springnote.com)는 네티즌들이 대학 노트 필기 등 각종 학습 및 생활 정보를 공유하는 서비스를 제공해 인기를 끌고 있다.

위키 플랫폼을 채택한 각종 인터넷 사이트를 살펴보면, 위키피디아처럼 완전 개방 정책을 채택한 곳부터, 내부자들끼리만 사용하는 곳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을 이루고 있다. 위키 계열 사이트들의 공통점은 정보를 체계적으로 모으고 또 공유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는 점이다. 다만, 내부 조직원을 대상으로 삼느냐, 외부의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삼느냐에 따라 사이트의 성격이 달라지고 있다.

정보 또는 지식의 체계적 구축과 활용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것은 앞서 언급했듯이 디지털 지성이 부각되는 현상과 관련이 깊다. 지식 사회가 점차 성숙되는 과정에서 사람들은 지식에 대한 양적 욕구에서 벗어나 질적 욕구 단계로 나아가고 있으며, 그런 흐름의 중심에는 디지털 지성이라는 개념이 놓여 있다. 나아가 위키가 주목을 받는 것은 집단 지성 또는 연결지성을 구현할 수 있는 힘과 매력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집단 지성은 대중이 각자 무의식적으로 행위를 하는 가운데, 정보가 여과되고 불완전한 정보가 보완되어 가는 역동적 작용을 뜻한다. 연결 지성 역시 정보와 정보가 연결되고 사람과 사람이 실시간 연결됨으로써 정보가 유통되고 모아지고 발전하는 것을 뜻한다. 본고에서는 연결에 무게 중심을 둔 연결 지성이라는 개념을 더 부각시키고자 한다. 위키피디아는 대규모 협업(Mass Collaboration)을 통해 연결 지성을 구현하였고, 위키 방식 지식 경영 시스템은 내부 조직원의 지식과 두뇌를 연결함으로써 새로운 조직 지성을 구현하였다.

그럼, 왜 연결 지성을 구현하기 위해 위키 플랫폼을 최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는가? 이에 대한 해답은 인터넷의 본질과 인터넷의 진화 과정에서 찾을 수 있다. 인터넷 초창기에는 누구나 HTML(Hypertext Markup

Language) 문법을 익히면 웹 사이트를 만들 수 있었다. 이 점은 PC 통신의 폐쇄성에 아쉬움을 느꼈던 사람들에게 신천지와 같은 매력을 선사하였다. HTML은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가장 원시적인 농기구와 같은 존재였다. HTML만 익히면 누구나 사이버 공간에 자신의 지식을 만들 수 있었지만, 일일이 손으로 작업을 해야만 하기에 넓은 땅을 경작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HTML을 대체할 수 있는 기계화 장비가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데이터 베이스 관리 시스템, 자바 스크립트 등이 웹에서 지식을 생산하는데 대표적인 기계화 도구들이다. 그러나 이런 도구들은 훈련된 프로그래머만 다룰 수 있어 보통 사람들이 사용하는데 장벽이 생겼다. 또 게시판이나 블로그와 같이 프로그래머가 제공한 일정한 틀 안에서만 자신의 의견이나 지식을 담을 수 있다. 따라서 사람들은 정보를 생산하거나 공유하려면 프로그래밍 등 기술적 요소를 매개체로 삼아야만 한다. 사람들이 서로 협업하는데 특정 전문가만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매개로 삼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

위키 플랫폼이 연결 지성을 구현하는데 적합한 플랫폼으로 떠오른 것은 사람과 사람의 연결, 정보와 정보의 연결을 방해하는 기술 종속성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위키는 HTML의 원시성을 회복하면서도 기계화의 장점도 상당히 수용하였다. 교통수단 중에서 위키에 가장 가까운 것은 자전거라고 할 수 있다. 자전거는 화석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고 인간의 힘으로만 움직이면서도 자동차 속도에 가까운 속도를 낼 수 있는 교통수단이다. 위키는 자전거처럼 인간의 자율성과 문명의 힘을 잘 조화시킨 것으로서, 사람이 손으로 일일이 지식을 생산하면서도 데이터 베이스 관리 시스템 방식에 버금가는 효율성을 얻을 수 있다.

사람들이 위키를 통해 자율성과 속도를 얻으면서, 사이버 공간에서 자유롭게 연결되기 시작하였다. 즉 위키 플랫폼은 프로그래머, 디자이너, 검색엔진 등 지식 외적 요소에 제한적으로 의존하면서 다른 사람의 두뇌

들이 서로 연결될 수 있고, 그 연결성을 무한 확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것이 위키 플랫폼의 진정한 힘이며 매력이다. 인터넷에 위키 플랫폼을 채택하면 조직 내부의 두뇌와 정보를 기술에 덜 의존하면서 연결하여 사내 지식 수준을 높이려는 것이고, 정부 사이트에 채택하면 부처들을 서로 연결하여 정책 지능 수준을 높이려고 시도하는 것이다. 연결 지성이 조직 내부에서든지, 외부에서든지 제대로 구현되면 위키피디아와 브리태니커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그 효율성은 어떤 방식도 따라잡기 어렵다.

5. 맺는 말

한국어 사전은 한민족 한글 공동체가 오랫동안 축적해온 지식의 총합이며 동시에 동 시대 한글 공동체가 새로운 지식과 문화를 생산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도구이기도 하다. 또 나아가 한글 공동체가 생산한 지식을 다시 축적하여 후손에게 물려줘야 할 지식 도서관이기도 하다.

종이는 최적의 사전 매체로서 오랫동안 생명력을 유지해 왔었다. 하지만 종이는 디지털 시대에 들어서 폭증하는 지식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디지털 기술이 지구촌을 네트워크로 촘촘히 연결하면서 종이 시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지식 생산량이 폭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식 생산량의 폭증은 다시 새로운 지식을 만드는데 필요한 기본 도구로서 사전의 기능도 제한하였다. 디지털 시대 사전 수요자들은 새로운 지식을 제 때 수용하지 못하는 사전을 점점 멀리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인터넷을 통해 묻고 답을 얻는 SNS(Social Network Service) 방식 등 새로운 방식으로 지식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다.

종이 매체에 맞게 제작된 한국어 사전 역시 디지털 시대의 요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물론 국립국어원에서 표준국어대사전을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는 등 인터넷 시대의 사전 수요에 대처해

온 것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인터넷 국어대사전은 소수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제작한 폐쇄형 사전이라는 점에서 변함이 없으며, 이런 형태의 사전은 디지털 시대 지식 수요를 감당하는데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인터넷 시대 한국어 사전의 핵심 과제는 한국어 공동체 구성원들이 사이버 공간을 통하여 서로 연결하여, 살아 움직이는 연결 지성을 구현하는 것이다. 사전이야 말로 연결 지성의 힘과 매력을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분야이다.

연결 지성을 추구하는 인터넷 시대의 사전은 먼저 국어학자 등 사전 관련 전문가들을 인터넷을 통하여 서로 수평적으로 연결하는데서 출발한다. 지금까지 대학, 학회 등 소속 기관에 따라 별도의 협업 시스템을 사용했다면 앞으로는 동일한 협업 시스템을 채택해야 할 것이다. 또 소속 기관이나 학과의 이해관계를 넘어서 수평적으로, 개방적으로 협업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인문학, 사회 과학, 공학, 자연 과학, 의학 등 다양한 전문 분야 학회 또는 협회도 수평적 협업 시스템에 연결해야 한다. 앞으로 인터넷 시대 사전은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학습 사전 성격을 넘어서 한 시대의 문화와 역사를 담는 지식 사전 성격도 포용할 것이다. 국어 또는 사전이외 지식 집단과 협업 시스템을 수평적으로 개방적으로 구축하지 못하면 사전으로서 제 기능을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다.

인터넷 시대의 사전을 완성하는 화룡점정(畫龍點睛)은 모든 한국어 공동체 구성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대규모 협업(Mass Collaboration) 시스템으로 확장하는 것이다. 초등학교생에서부터 다문화 가정, 언론인, 문학가, 교사, 한국어 학습 외국인 등 각계각층 한국어 사용자들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지식을 보태고, 잘못된 지식을 바로 잡을 때 새로운 한국어 사전의 연결 지성이 빛을 발할 것이다. 나아가 새로운 한국어 사전은 세계 문명사에 뚜렷한 족적을 남기며 지구촌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게 될 것이다.

참고 문헌

- 바라바시, L. 강병남, 김기훈 역. 2002. “링크”. 서울:동아시아
- 우병현. 1996. “디지털은 자본이다”. 서울:나남
- 조선일보.2007. “엮히고 설킨 세상 네트워크로 푼다”, 11월 17일자
- 조선일보. 2008. “‘온라인 백과사전’ 위키피디아 창업자 지미 웨일스”,
4월 26일자
- 조선일보.2009. “진정한 IT 혁명은 지금부터... 클라우드 컴퓨팅 시대 온
다”, 2월 7일자
- 조선일보. 2009. “세계적 미디어 석학들의 특별 강연 ‘정보 다루는 기술이
경쟁력을 결정한다’”, 11월 6일자
- 카, 니컬라스. 임종기 역. 2008. “빅 스위치”. 서울:동아시아
- Hansen, T. Morten. 2009. *Collaboration*. Harvard Business Press
- Tapscott, D. & Williams, D.A. 2006. *Wikinomics*. Portfolio